"매주 가족회의를 엽시다"

서울Y캠페인, 가족간 이해에 도움…30분정도 적당

"가족회의를 생활화합시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서울기독교청년회는 5일부터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매주 가족회의를 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족회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화목한 가정,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는 서울기독교청년회에서 권하는 가족회의 진행법 등을 소개한다.

◇ 가족회의의 좋은 점=자녀의 용돈 규모와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에서부터 집안일 분담, 휴가계획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의 처지와 의견을 조정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다. 매주 요일을 정해 가족회의를 갖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고민과 희망을 알게 되고 어른들도 자녀의 생각과 꿈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또 가족이 모두 모여 가정문제를 공동참여로 풀어가면서 각자 할 일을 찾아 실천하며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훈련도 쌓는다.

◇ 가족회의를 가질 때 주의할 점=되도록 전 가족이 모두 참여해야 하고 회의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회의를 통해 '1주일에 술을 한번만 마시겠다'거나 '담배를 반갑으로 줄이겠다' 등 무리한 실천계획을 약속하지 말고 '시험에 일등 하기' 등 지나치게 목적의식적인 사항을 서로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벌칙규정도 둘 수 있으나 가족들에게 봉사가 되며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한다.

◇ 회의 기록방법=△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사회자, 기록자를 적는다. △지난주 반성란을 둬 각자가 반성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여러가지 주제 중 토의하기로 결정된 안건을 적는다. △결정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사항을 기록한다. △토의결과 결정한 내용을 적는다. △친지 결혼식, 할머니 생신 등 가족이 모두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리고 광고란에 기록한다. △다음주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정해서 적는다. △회의 분위기나 느낌, 평가 등을 비고란에 메모해두면 다음 회의시간에 참고가 될 수 있다.